

제6차 경제개발5개년계획기간('87~'91) 중 가정·상업부문의 에너지소비구조분석

姜完植

〈동력자원부 가스기획과 화공기좌〉

1. 머리말

최근 우리 경제는 제조업의 대외경쟁력 약화로 수출신장세는 둔화되는 반면 수입자유화물결에 편승한 외제선호와 일부계층의 과소비 활동등으로 인하여 수입이 증가하면서 무역적자가 100억달러에 육박하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에너지소비마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부존자원이 없어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91년도 에너지수입액이 무려 124억달러나 된다는 점을 감안할때 에너지소비증가가 무역수지 불균형에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금년도 에너지소비증가율을 10% 이내로 억제하기 위하여 정유회사의 석유수입물량을 월별로 할당하고 차량 10부제를 운영하는등 공급과 소비의 양부문에 대한 에너지절약통제를 강력히 실시해 나가고 있으나 가격조정과 같은 원천적인 정책수단등원과 국민의식이 변하지 않는한 과연 얼마나 성과를 거둘수 있을런지 우려되는바 크다. 왜냐하면 80년대 후반 이후 우리의 소득이 조금 늘었다 하여 너나 할것 없이 제조현장에서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일이라든지 가정에서 연탄을 사용하는 일들이 귀찮고 불결하다 하여 편하고 깨끗한 것만 추구하는 경향이 사회전반에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제6차경제개발5개년계획기간이었던 지난 '87~'91년중 우리나라 에너지소비구조가 어

떻게 변화되었으며 특히 가정·상업부문에 있어서의 연료사용실태는 과연 얼마나 고급에너지로 전환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에너지사용에 있어 근검절약할 부문과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를 스스로 생각해 해보자 한다.

2. 총에너지 소비

(1) 에너지소비와 경제성장을 및 무역수지관계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6차계획 초기년도 그러니까 서울올림픽 개최 이전인 '87~'88년도에는 경제성장률보다 에너지소비증가율이 낮아 에너지/GNP 탄성치가 1미만이었으며 무역수지측면에 있어서도 70~110억달러 수준의 무역흑자를 보였으나 '89년 이후부터는 에너지소비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앞서기 시작하면서 에너지수입액을 비롯한 여타 수입액이 급증하면서 무역수지도 큰 폭으로 악화되기 시작하여 '87~'91기간중 수출액은 1.7배 신장에 그쳤으나 수입액은 2.0배, 에너지수입액은 2.2배, 석유·가스 수입액은 2.6배나 증가하였다.

(2) 에너지원별 소비구조 변화

최종에너지소비를 기준으로 한 에너지원별 소비구조변화에 있어서는 7~12% 수준의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과 이에 따른 국민소득증가 및 환경규제시책등에 영향을 받아 고급에너지인 석유·가스의 구성비는 '87년 51.8%에서 '91년에 66.2%까지 증

〈표-1〉

에너지와 경제성장 및 무역수지 지표관계

	1987	1988	1989	1990	1991(잠정)	1992(전망)	'87對'91
경제성장률(%)	12.9	12.4	6.8	9.0	8.6	7.0	
에너지소비증가율(%)	10.4	11.0	8.4	14.1	10.9	10.4	
에너지/GNP 탄성치	0.81	0.89	1.24	1.57	1.27	1.49	
무역수지(억달러)	76	114	46	△20	△97	△95	
-수출	473	607	624	650	719	810	1.5 배
-수입	400	518	615	698	816	905	2.0 배
에너지수입액(억달러)	56	55	72	107	124	139	2.2 배
-석유·가스	41	41	57	93	107	120	2.6 배
-기타	15	14	15	14	17	19	1.1 배
석유의존도(%)	43.7	47.0	49.6	53.8	57.7	61.8	14.0증
에너지수입의존도(%)	80.0	83.2	85.5	87.9	91.2	92.9	11.2증

〈표-2〉

에너지원별 소비구조변화 : 최종에너지기준

	1987	→	1991	증감(%)
-석유, 가스 구성비(%) :	51.8		66.2	14.4
-석탄, 신탄 구성비(%) :	38.2		24.5	△13.7

(단위 : 구성비(%))

	1987	1989	1991(잠정)	1992(전망)
석유	47.7	51.8	59.6	60.1
가스	4.1	5.3	6.6	7.5
┌ LPG	┌ 3.9	┌ 4.6	┌ 5.2	┌ 5.9
└ LNG	└ 0.2	└ 0.7	└ 1.4	└ 1.6
석탄	35.8	30.6	23.7	21.0
┌ 무연탄	┌ 21.8	┌ 15.3	┌ 8.6	┌ 6.6
└ 유연탄	└ 14	└ 15.3	└ 15.1	└ 14.4
전력	10.0	10.7	10.8	10.8
신탄	2.4	1.6	0.8	0.6
합	100	100	100	100

가하였으나 저급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석탄·신탄의 구성비는 38.2%에서 24.5%까지 감소하였다. 특히 석탄중에서도 무연탄은 21.8%에서 8.6%까지 약 1/3로 격감함으로써 국내 총에너지소비측면에서 볼 때 무연탄의 구성비는 이제 10% 미만으로 그 중요성이 매우 약화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대부분이 아직도 가정·산업부문에서 저소득층위주로 사용되고 있는 민생연료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3) 석유·가스·무연탄의 수요증감추이

석유환산톤(TOE) 기준으로 주요에너지의 수요증감률을 살펴보면 석유는 이 기간중 연평균 16.5%, 가스는 24.8% 증가하여 전체 에너지증가율 10.8%를 훨씬 상회하였으나 무연탄은 오히려 연평균 12.1

%씩 감소하여 〈표-2〉에서의 에너지원별 구성비변화를 입증해주고 있다.

(4) 부문별 소비구조 변화

부문별 에너지소비구조는 '91년도 전체에너지중 산업부문이 과반수 이상인 50.6%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가정·상업부문으로 26.1%, 수송이 19.9%, 공공기타 부문이 나머지 3.4%를 점유하고 있으나 산업발전과 차량증가에 힘입어 산업과 수송 부문은 계속증가추세이므로 '93~'94년경에는 수송부문이 가정·상업부문을 앞질러 산업다음으로 두번째로 에너지소비가 많은 부문으로 변화할 전망이다.

이는 가정·상업부문의 에너지소비가 감소해서가

〈표-3〉 주요유종의 수요증가 추이(최종에너지 기준)

(단위: 천 TOE)

구분	1987	1989	1991(추정)	1992(전망)	'87~'91평균
석유	28,372	36,967	52,330	60,509	16.5%
가스	2,259	3,518	5,477	6,972	24.8%
LPG	2,161	3,065	4,346	5,509	19.1%
LNG	98	453	1,131	1,463	84.3%
계	30,631	40,485	57,807	67,481	17.2%
기타에너지	24,556	25,319	25,228	24,954	0.7%
-무연탄	12,006	10,057	7,156	6,071	△12.1%
합	55,187	65,804	83,035	92,435	10.8%

〈표-4〉 부문별 에너지소비구조 변화

	1987	1991	증감(%)
- 산업·수송부문 구성비(%) :	61.5	70.5	9.0
- 가정·상업부문 구성비(%) :	34.2	26.1	△8.1

	구성비 기준(%)				물량 기준(백만 TOE)		
	1987	1989	1991(집정)	1992(전망)	1987	1991	'87~'91평균
산업	44.7	46.9	50.6	52.1	(24.6)	(42.0)	14.3%
수송	16.8	18.6	19.9	20.4	(9.3)	(16.5)	15.6%
가정·상업	34.2	30.4	26.1	24.3	(18.9)	(21.9)	3.5%
공공·기타	4.3	4.0	3.4	3.2	(2.4)	(2.8)	4.0%
합	100	100	100	100	(55.2)	(83.0)	10.8%

아니라 산업·수송부문이 연평균 14~16% 급증함에 따라 전체에너지소비도 10.8%나 되어 가정·상업부문의 3.5% 증가율을 훨씬 초과하고 있는데 기인한다.

3. 가정·상업부문의 에너지소비

(1) 에너지원별 소비구조

전체에너지중 약 1/4을 차지하고 있는 가정·상업부문의 에너지소비는 우리가 가정이나 사무실, 음식점등에서 일상생활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전기, 석유, 가스, 연탄등의 소비실태를 말하는 것이나 이 또한 총에너지기준시와 크게 다를바 없이 고급에너지가 국민소득증가에 따른 편리성추구성향과 환경규제 및 주택구조등 주거환경변화로 청정에너지인 석유·가스·전기의 구성비는 '87년 30.9%에서 '91년에는 2배가 넘는 64.3%까지 증가한 반면 저급에너지인 석탄·신탄은 69.1%에서 35.7%로 반감하여 '87년 가정·상업부문연료의 62%를 점유하여 주종에너지자리를 차지하던 석탄이 '91년도에는 석유에게 주종에너지자리를 빼앗겼고 머지않아 가스

에너지한테도 2위자리를 양보해야할 처지에 놓여 있음을 〈표-5〉에서 알 수 있다.

(2) 석유·가스의 유종별 소비

가정·상업부문의 주종에너지원으로 등장한 석유와 가스의 유종별 소비동향을 살펴보면 석유는 가정용유류보일러로 사용되는 등유·경유가 연평균 35% 내외로 급증하고 있어 소비를 주도하고 있으며 아파트와 목욕탕, 빌딩등 대형건물의 난방연료인 B-C유는 수도권지역의 LNG 사용의무화조치로 9.4% 증가에 그치게 되었으며 도시가스원료로 사용되던 나프타는 LNG와 LPG로 원료를 대체함에 따라 '90년도 부터는 전량 석유화학원료로 투입되게 되었다.

한편 가스는 석유보다도 더 높은 32%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중에서도 LNG는 '87년 국내에 도입공급된후 환경처의 청정연료사용조치에 힘입어 연간 100%씩 증가하고 있으나 사용량측면에서는 LPG가 절대물량을 차지하고 있다.

(3) 가구별 에너지사용실태

가정에 있어서의 에너지원별 사용실태를 분석해보면 '87년에는 취사 또는 난방용으로 연탄을 사용

〈표-5〉

가정·상업부문의 에너지원별 소비구조

	1987		1991	증감(%)
-석유, 가스 구성비(%) :	23.3	→	51.7	28.4
-석탄, 신탄 구성비(%) :	69.1	→	35.7	△33.4

(단위 : 구성비(%))

	1987	1989	1991(잠정)	1992(전망)
석 유	17.2	25.1	35.5	37.8
가 스	6.1	10.5	16.2	19.0
┌ LPG	┌ 5.8	┌ 8.7	┌ 11.8	┌ 13.4
└ LNG	└ 0.3	└ 1.8	└ 4.4	└ 5.6
전 력	7.6	10.1	12.6	13.8
무 연 탄	62.1	49.1	32.8	26.9
신 탄	7.0	5.2	2.9	2.5
計	100	100	100	100

주 : 발전용 LNG 및 산업용 가스수요는 제외

〈표-6〉

석유와 가스의 제품별 소비증가 현황

(단위 : 석유(천배럴), 가스(천톤))

	1987	1989	1991(잠정)	1992(전망)	'87~'91평균
○석 유	22,027	34,512	54,471	60,698	25.4%
┌ 등유	┌ 5,887	┌ 11,177	┌ 19,704	┌ 21,054	┌ 35.3%
└ 경유	└ 7,400	└ 12,543	└ 22,702	└ 27,515	└ 32.3%
└ B-C유	└ 8,432	└ 10,501	└ 12,065	└ 12,129	└ 9.4%
└ 나프타	└ 308	└ 291	└ -	└ -	└ -
○가 스	958	1,731	2,873	3,475	31.6%
┌ LPG	┌ 910	┌ 1,451	┌ 2,138	┌ 2,516	┌ 23.8%
└ LNG	└ 48	└ 280	└ 735	└ 959	└ 97.8%

하는 가구수가 75.5% 이던 것이 '91년에는 53%로 감소한 반면, 가스는 59.8%에서 82%로, 석유는 6.5%에서 28.4%로 각각 증가하여 '91년의 경우 국내 총가구수 대비 가스사용가구수가 82%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연탄사용가구로 53%이며 석유는 연탄보다 적은 28%이다. 〈표-7〉에서 에너지원별 사용가구수가 국내 총가구수를 넘고 점유비 또한 100%를 넘는 것은 취사는 가스를 사용하면서 난방은 연탄을 사용할 경우 가스 및 연탄사용 가구수에 각기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91년의 경우 약 740만 가구(18,994천 가구와 11,624천 가구의 차이)가 취사·난방용 연료로 2가지 이상을 사용하고 있다는 계산이 산출된다.

가. 취사용연료의 사용가구분포

국내 총가구중 취사용연료는 82%가 가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중 LPG가 800만 가구로 69%를 차지하고 있고 도시가스는 150만 가구로 13%밖에 되지 않

아 산간지방과 도서오지 및 도시지역 달동네 같은 영세민거주지역을 제외하고는 시골과 도서지방에도 LPG 통을 이용한 가스연료취사가 일반화되었음을 알 수 있어 2~3년내 가스사용가구수가 90%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나. 난방용연료의 사용가구분포

취사연료와는 달리 난방연료사용실태는 〈표-9〉에서 볼 수 있듯이 아직은 연탄난방가구수가 52%나 되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기름보일러사용가구로 39%이며 가스는 9%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로 연료대체가 진행된다면 전제할 경우 2~3년내에 기름보일러사용가구수가 연탄사용가구수를 앞질러 그동안 겨울철 난방연료의 대명사로 불리며 수십년동안 영화를 누리오던 주종 에너지자리를 천연료에 영원히 넘겨주게 되는 비운을 맞게 될 것으로 예견된다.

<표-7>

에너지원별 사용가구실태

(단위: 천가구(점유비))

	1987	1989	1991(잠정)	1992(전망)
○가 스	6,131(59.8)	8,172(74.7)	9,535(82.0)	10,322(86.0)
└LPG	└5,563(54.2)	└7,242(66.2)	└8,008(68.9)	└8,334(69.7)
└도시가스	└568(5.6)	└930(8.5)	└1,527(13.1)	└1,988(16.6)
○연 탄	7,741(75.5)	7,957(72.7)	6,161(53.0)	5,743(48.0)
○석 유	671(6.5)	1,888(17.2)	3,298(28.4)	3,798(31.7)
계	14,543	18,017	18,994	19,863
국내총가구수	10,259	10,946	11,624	11,964

<표-8>

취사연료 사용가구 현황

(단위: 천가구(구성비))

	1987	1989	1991(잠정)	1992(전망)
○가 스	6,131(59.8)	8,172(74.7)	9,535(82.0)	10,322(86.3)
└LPG	└5,563(54.2)	└7,242(66.2)	└8,008(68.9)	└8,334(69.7)
└도시가스	└568(5.6)	└930(8.5)	└1,527(13.1)	└1,988(16.6)
○기타연료	4,128(40.2)	2,774(25.3)	2,089(18.0)	1,642(13.7)
국내총가구수	10,259(100)	10,946(100)	11,624(100)	11,964(100)

난방연료사용구조상 특이한 사항은 <표-6과 9>에서 파악되었듯이 유류보일러는 중전의 경유보일러 중심에서 등·경유보일러 체제로, 가스보일러도 도시

가스와 LPG를 이용한 난방체제로 이원화되고있어 취사용으로만 사용되던 LPG 용기가 난방용으로도 이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9>

난방연료 사용가구 현황

(단위: 천가구(구성비))

	1987	1989	1991(잠정)	1992(전망)
○연 탄	7,741(75.5)	7,957(72.7)	6,161(53.0)	5,743(48.0)
○석 유	2,434(23.7)	2,619(23.9)	4,434(38.1)	4,728(39.5)
○가 스	84(0.8)	370(3.4)	1,029(8.9)	1,493(12.5)
└LPG	└30	└135	└366	└498
└도시가스	└54	└235	└663	└995
국내총가구수	10,259(100)	10,946(100)	11,624(100)	11,964(100)

주: 석유보일러 가구수는 연탄 및 가스를 제외한 잔여가구수

4. 가스의 소비구조

(1) 가스종류별

'91년도 총 630만톤이 소비된 가스에너지는 LPG가 360만톤으로 58%, LNG가 270만톤으로 42%를 차지하고 있어 LPG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나 LNG 수요증가율이 매우 높아 점차 그 차이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용도별 가스소비구조

'91년 가스의 용도별소비구조는 취사·난방용 가스 수요증가로 가정·상업부문의 사용비율이 45%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LNG 발전의 29%이며 LPG 택시연료인 수송용이 18%이고 나머지가 산업용이

다.

가스종류별로 구분해 보면 LPG는 용기(통)에 의한 가정·상업부문의 취사·난방연료가 49%나 되며 LPG 택시연료가 31%, 그리고 도시가스원료와 산업용이 각각 10% 내외이고, LNG는 도시가스용과 발전용사용비율이 33:67로서 발전용이 아직은 절대적물량을 차지하고 있다.

5. 에너지원별 가격비교

가정·상업부문의 에너지원별가격을 분석해보건대 취사용연료는 이미 가스로 거의 전환된 상태이며 또한 취사연료는 난방연료와 달리 사용량이 적고,

<표-10>

LPG와 LNG 수요 비교

(단위 : 천톤)

	1987	1989	1991(잠정)	1992(전망)
L P G	1,815	2,571	3,643	4,620
L N G	1,612	2,019	2,681	3,390
計	3,427	4,590	6,324	8,010

<표-11>

가스의 용도별 소비구조

(단위 : 천톤(구성비))

	1987	1989	1991(잠정)	1992(전망)
1. L P G	1,815	2,571	3,643	4,620
- 용기	852(46.9)	1,340(52.1)	1,770(48.6)	1,996(43.2)
- 도시가스	58	111	368	520
- 수송	765(42.1)	964(37.5)	1,121(30.8)	1,237(26.8)
- 산업	140	156	384(10.5)	867(18.8)
2. L N G	1,612	2,019	2,681	3,390
o 도시가스	75(4.7)	349(17.3)	870(32.5)	1,125(33.2)
- 가정·상업	48	279	735	959
- 산업	27	70	135	166
o 발전	1,537(95.3)	1,670(82.7)	1,811(67.5)	2,265(66.8)
3. 計	3,427	4,590	6,324	8,010
- 가정·상업	958(28.0)	1,730(37.7)	2,873(45.4)	3,475(43.4)
- 수송	765(22.3)	964(21.0)	1,121(17.7)	1,237(15.4)
- 산업	167	226	519	1,033
- 발전	1,537(44.8)	1,670(36.4)	1,811(28.6)	2,265(28.3)

주방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연탄과 석유는 냄새와 점화 및 소화의 불편등으로 가스를 선호하고 있어 가격의 비교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난방용연료를 「개별난방」과 「중앙난방」으로 구분하여 비교해 보고자 한다.

<개별난방>

보일러의 열효율까지 감안한 유효열량당 가격을 기준으로 할때 경유와 도시가스(LNG)는 거의 같고 연탄은 경유대비 10%정도 비싸나 등유와 LPG는 25%, 70%가 비싼 수준이다. 연탄보일러의 경우는 이러한 가격구조에도 불구하고 재래식 주택구조상 어쩔수 없이 연탄난방을 하는 경우와 연탄가스위험

과 연탄재처리, 연탄불갈기의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연속(24시간) 난방이 가능한 장점도 있어 장·노년층의 세대를 중심으로 연탄이 그래도 싸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아직도 서민연료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앙난방>

유효열량당가격기준시 대단위 아파트단지에서 사용하는 B-C유 가격이 가장 저렴하며 LNG와 경유는 거의 2배 가량 비싸며 지역난방의 경우는 지역별로 차이는 있으나 신도시지역에 적용될 요금기준시 LNG 보다 약 30% 수준 저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표-12>

개별난방연료의 가격비교

	등 유	경 유	L N G	L P G	연 탄
o 유효열량당가(원/천kcal)	31.03	24.73	25.96	42.94	28.06
o 가격 지수	125	100	105	174	113
- 소비자가격(원/ℓ)	216	182	231.7/m ³	438/kg	250/개
- 발 열 량(천kcal)	8,700	9,200	10,500	12,000	4,500
- 열 효 율(%)	80	80	85	85	60

<표-13>

중앙 난방연료의 가격비교

	B-C 유	경 유	L N G	지 역 난 방
○ 유효열량단가(원/천kcal)	11.65	22.65	23.79	*9.43(29.22)
○ 가격 지수	100	194	204	81(251)
소비자가격(원/ℓ)	92.24	166.69	212.26/m ³	*연료비
발 열 량(천kcal)	9,900	9,200	10,500	()는 고정비 포함
열 효 율(%)	80	80	85	수용가요금 기준시

주 : 연료비에 보일러 및 인건비등을 포함한 수용가 부담 열요금 기준시는 지역난방이 LNG 대비 약 30% 수준 저가

6. 맺는말

이상과 같은 6차계획기간중의 에너지소비구조변화에 대한 실태분석을 하면서 본인이 느낀바 몇가지 사항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에너지원별 소비구조측면에서는 석유·가스소비 증가가 너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수입에너지 의존도 심화, 석유·가스부문의 에너지공급시설 확충투자소요의 집중유발등을 초래하는 한편, 단 기간내 석탄수요 격감으로 석탄산업이 단계적인 구조전환을 이루지 못하고 붕괴되고 있어 에너지 산업구조형성이 취약해질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 부문별 소비구조측면에 있어서는 총에너지수요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수송부문의 에너지 소비증가가 연 15% 수준으로 에너지소비를 주도

하고 있어 동부문에 대한 에너지소비절약강화시책이 중점 추진되어야 하겠으며,

- 가정·상업부문의 에너지소비실태중 취사용연료의 가스화는 수요관리가 곤란하나 난방연료의 과도한 가스화현상은 국내부존자원의 활용과 에너지과소비 억제등을 위하여도 바람직스럽지 아니하다고 생각되어 가격 및 연소기구정책을 이용한 일부 수요관리시책의 검토필요성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판단해 보게 된다.
- 또한 가정·상업부문의 에너지원별 가격구조에 있어서는 물가안정을 위한 석유·가스가격의 저가유지정책도 중요하지만 사용편리성과 공해성, 청정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에너지원별 적정상대가격의 유지를 통하여 자원배분의 왜곡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다. ♣

<세계의 석유시장>

'92년도 세계 先物시장의 동향

'92년도 세계선물시장의 방향은 기존 거래량의 지속적 증가세 유지와 신규수요의 창출 움직임으로 요약될 수 있다.

또한 세계 주요선물시장인 NYMEX(뉴욕상품거래소)와 IPE(런던 국제석유시장)는 그동안 논의되어 오던 고유황유(Sour Crude)의 상장과 24시간 거래제(24-Hour Trading)의 도입을 보다 구체화 할것으로 알려져 '92년의 세계선물시장은 새로운 변화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NYMEX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1) 투기성 거래의 감퇴에 따른 유동성 저하, 2) 공급체

계의 경직성, 3) 심리적 요인에 의한 가격등락 심화 등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는데 고유황유 상장과 24시간 거래제가 시행될 경우, NYMEX는 세계적인 선물 시장으로서의 도약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이며, '92년도 세계선물시장은 고유황유 상장과 24시간 거래제도의 도입으로 기존시장의 활성화 및 신규수요의 확대등의 새로운 변화가 예상되고 특히 선물가격방식에 있어 기존의 WTI나 Brent油에서 Sour원유 중심으로 가격방식이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며 아시아 및 유럽시장으로의 수요확대 전략은 아시아, 태평양지역 국가들로 하여금 향후 선물시장 참여의 폭을 보다 용이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